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17
----------	------

발의연월일 : 2024. 7. 29.

발 의 자 : 윤준병 · 민형배 · 박민규
이성윤 · 신영대 · 이춘석
박희승 · 허종식 · 정진욱
황명선 · 양부남 · 문진석
이재관 · 서삼석 · 박균택
김윤덕 · 안태준 · 복기왕
정동영 · 이원택 · 박수현
안호영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의2(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건의에 관한 특별)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제9조의2(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건의에 관한 특례)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u></p>

야 한다.